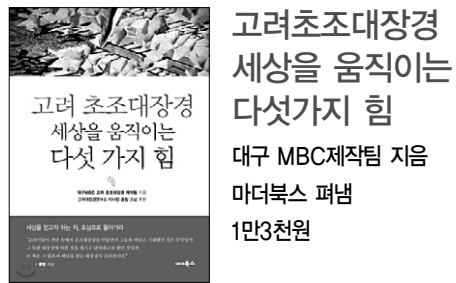


# 초조대장경 탄생부터 현재까지 심층 조명



대구 MBC가 제작해 화제가 된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 초조대장경'의 방송장면

부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초조대장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부인사에 대한 재조명은 세계적인 목판인쇄술과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초조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는 일이다. 대구 팔공산 부인사의 역사는 7세기,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인사는 왕조가 바뀌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천 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영남지역의 주요 고찰로서 그 위상이 드높았던 부인사는 협준한 산세와 더불어 북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이 나라의 보물,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고려시대 몽고 침입으로 소실된 고려 초조대장경은 역사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인쇄본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의 존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대장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재조대장경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이전에도 대장경이 존재했다. 바로 고려 현종 2년(1011년)에 판각을 시작한 초조대장

경이다.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은 초조대장경이 불타 소실된 이후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고려 수도인 개성서 부인사로 이운된 초조대장경. 하지만 몽고 전란 중 봉안처였던 부인사의 화재로 목판이 영원히 소실되었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고려 초조대장경이 판각 1000년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단행본 <고려 초조대장경, 세상을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은 대구MBC가 제작한 화제의 특집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1 불교인문문화상 TV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들이 초조대장경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책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분량 상 담지 못했던 초조대장경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화보, 도표 등 각종

자료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상세히 전해 준다. 이를 통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 고려 시대 때 초조대장경 조성 이유와 과정, 몽고와의 전란 속에 대장경이 소실된 과정, 일본으로의 전파 경로 등 대장경 역사를 되짚어 보고, 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의 의미를 밝혀낸다. 부인사 초조대장경 유해지 발굴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천 년 만에 화재로 소실된 초조대장경 목판을 복원하는 흥미로운 과정 또한 이 책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다.

판각 천 년의 해를 맞아 다채롭게 열린 초조대장경 전시회 풍경, 컬러 일러스트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장경의 제작과정, 한국·중국·일본 대장경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역 대장경 연표, 실제로 일어났던 일본 안국사 초조대장경 도난사건을 다룬 역사 소설 소개까지, 이 책은 지금까지 배

일에 싸여 있던 초조대장경을 새롭게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대장경의 여정은 부처의 고행 길처럼 험난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통도사 광우 스님,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남권희 교수, 대구MBC 대표이사 차경호 사장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고려 초조대장경의 존재와 의미를 밝히는 데 뜻을 함께했다. 초조대장경 연구와 발굴, 복간, 우리말 옮김과 디지털화 과정에 참여한 학자와 불교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등 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생생한 증언, 인터뷰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대구문화방송 제작팀은 초조대장경 인쇄본의 소장처를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작을 시작했다. 1년 6개월을 넘는 제작기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네팔, 일본 등을 입체적이면서도 심도 깊게 취재해 고려 초조대장경을 방송영상물로 부활시켰다. 특히 고려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인 일본 대마도 '장승사'에 보관되어 있는 대만아바라밀다경 600권 전질과 초조대장경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이키섬의 '안국사' 소장 대장경을 국내의 최초로 촬영해 세상에 알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종림 스님(고려대장경 연구소장)은 "고려인들이 전란 속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들면서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목판 대장경에 어떤 것을 새기고 담아내고자 했던 것일까. 이 책은 그 물음과 해답을 찾는 대장경의 길잡이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무궁무진한 한국 신화의 힘

신과함께(상중하)

주호민 지음 | 에니북스 펴냄 | 각권 1만1천원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라도 한 번쯤은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을 것이다. 흥미진진한 신들의 이야기는 10여 년 전 공중파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정작 한국인은 우리는 한국의 신화나 설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군신화를 제외하고 한국의 다양한 설화를 한권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서양 사상의 근원이 된 그리스 로마신화에 대해서는 줄줄 외우면서,

그런 의미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신과함께-신화편>는 한국의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2010년부터 연재된 <신과함께>는 저승, 이승, 신화편 총 3부작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신화편은 전편들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프리퀄적 요소가 강하다. 작가 특유의 참신한 상상력과 적재적소에서 터지는 유머와 유희, 토속적 정서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인기로 <신과함께>는 현재 일본 만화잡지에서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영화로도 제작, 개봉된다.

<신과함께-신화편>은 제주의 신화인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차사본풀이와 경기도 신화인 성주 풀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다만, 신화편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일부 각색이 됐고, 전편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섯 개의 신화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일해 모두 이어지게 만들었다.

실제 첫 번째 이야기인 '대별소별 전'의 경우, 원전인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원래 대별왕이 혼자 해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함께 활을 쏘 해를 떨어뜨리도록 각색했다.

작가는 후기에서 "지금 세상에는 한 명의 영웅보다는 개개인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각색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상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차사전이나 외전 형식으로 삼입된 철용전 등은 자료가 부족해 완전히 창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호민식' 상상력으로 복원된 한국 신화는 그 나름대로의 맛을 가진다.

작가는 <신과함께>를 "어디까지나 한국 신화의 동인지 정도로 봐달라"고 당부하지만, 그리스 로마신화 정도만 알아 온 한국 사회에 <신과함께>는 우리의 신화를 대중 콘텐츠화한 교본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 교재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된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본편인 이승과 저승편은 어른들을 동화다. <신과함께>-이승, 저승편>는 누군가를 잃고 일어서야 하는 무한 경쟁시대, 누구나 죄인이 돼야 하는 시대를 저승차사들을 통해 비판하고 있어서다.

주인공 김자홍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저승편'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두 축으로 진행된다. 김자홍은 하정업체의 고혈을 짜냈다는 혐의를 받지만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지

정감 넘치는 한국 설화들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학생 교재로 활용도 높아

장보살의 화신) 진기한 회사의 압력과 영업 실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항변한다.

사실 소개되는 지옥들의 형벌 기준에서 보면 이승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신과함께-저승편'는 지옥이 꼭 찰만 큼 죄를 짓는 게 당연해진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이후 사후 세계의 모습을 통해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 준다.

반대로 '이승편'은 가난이라는 지옥에 던져진 서민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일련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말한다. 그리고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죄인이 된다는 명제 역시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신화로 이어지는 '신과함께'는 우리 모두의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대판 민담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가는 말한다.

"하늘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 똑바로 살라"고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마음공부 목표 정확히 제시

깨달음

순일 스님 지음 | 여래 펴냄 | 1만5천원



수행의 시대다. '마음다스림'이나 '마음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행에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인 순일 스님의 마음공부법은 불자들에게 큰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음공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 한 후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가령 스님은 불자들에게 말한다. "삶에서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하는 이런 삶의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다량취 췌바

퀴의 고통은 끝이 없게 된다. 이 둘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는 대상과 싫어하는 대상 모두를 사랑함으로써 '집착'과 '저항'을 초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인간이 육체에 얽매어 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집중으로서, 욕망과 분노를 비롯하여 자아가 낳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도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인 삼매에 도달하는 명상 수행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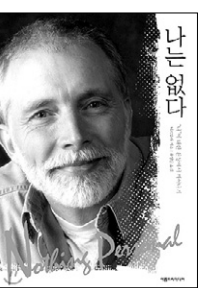
의식과 무의식, 본래마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그 틀에 따라 참마음과 마음의 상태를 넘나들면서 삼매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미내사에서 <참나를 찾아서>, <금강경>, <초기경전> 등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현재 부처님 초기경전을 받들기 위해서 순일 선원을 설립하고 '원음종'을 창종했다. 저서로는 <깨달음> <삼매>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 '참나' 깨닫는 것이 진정한 '웰빙'

나는 없다

니르말라 지음 | 유영일 옮김 | 이룸드림미디어 펴냄 | 2만원



우리 모두는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대개 우리는 '나'를 개선하려고 애쓴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나'에게 좋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면 '나'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더라도,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금방 또 다시 불만족에 빠져들어 더 큰 갈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오해 또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다. '나'라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이 뿐이다. '나'는 한마디로 거짓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한다거나 더 낫게 만들어 애써봤자 헛수고일 따름이다. 어떤 것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것도 '내'가 아니다. 심지어 고통도 '내 것'이 아니며, 심오한 영적 깨달음조차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된 '나' 또는 개별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럴 때 '참나'를, 우리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고 말로도 글로도 쓸 수 없는 진리를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큰 사랑 안에서 진정한 웰빙(Well-being)을 노래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인 니르말라는, 미국 서부에서 영성운동을 펼치며, 우리를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참 근원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탄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췌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줍니다. 마강염주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신용인문문화출판 20-2011-0003692 20-2011-0004175 20-2011-0005656

다함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